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정관(안양대학교/교수)

aram@anyang.ac.kr

한글 초록

오늘의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면서 가정 또한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 현 사회가 다원화와 개인화가 되어가면서 가정이 교육적인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즉 기독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무너져 내려져 있음을 즉시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오늘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문제는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에 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가 개인주의, 자본주의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가 자녀세대와 가치관의 차이가 확대됨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졌다. 더불어 세대 간 문화의 단절로 인한 가정에서의 대화단절이 신앙교육의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기독교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교육을 실행할 때 자녀들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신앙교육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신앙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부재라는 당면한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을 통한 신앙교육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것이다. 둘째 신앙교육의 시작 의사소통에 대하여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가정에서 의사소통과 그 방법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독교 가정의 신앙교육을 회복하고 실행하기 위한 실마

리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주제어 》

가정, 부모, 신앙교육, 의사소통, 자녀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교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와 가정과 교회의 신앙교육, 사회문화의 변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정교육의 회복에 초점을 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위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논할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교육을 명령하신 기관이다. 그런데 오늘의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유행을 겪으면서 교회 교육 기능이 약화 되는 현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면서 가정도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현 사회가 다원화와 개인화가 되어가면서 가정이 교육적인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교육적 기능 상실의 근본 원인은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교회로 이관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힘을 잃어 간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기독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무너져 내렸음을 즉시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의 가정교육에 대한 미흡적 태도와 입시 위주의 교육 등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부모들의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적인 교육관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무너져 내리게 한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문제는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에

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가 개인주의, 자본주의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가 자녀세대와 가치관의 차이가 확대됨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있다. 더불어 세대 간 문화의 단절로 인한 가정에서의 대화단절이 신앙교육의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과 게임,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점점 증가함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갈등을 자극 또는 해결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연시킨다. 그리고 전형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정의 심리적 안정의 기능이 현대사회에서 지친 심신을 잘 쉬게 하는 것이 재생산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쉼 속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모의 자녀 양육과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절실히 필요함을 절실히 인식한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부재라는 당면한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을 통한 신앙교육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것이다. 두 번째 신앙교육의 시작하기 위한 의사소통에 대하여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가정에서의 의사소통과 그 방법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독교 가정의 신앙교육을 회복하고 실행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신앙교육 기능의 약화를 가져왔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앙교육이 일어나는 곳으로, 자녀에게 교육이 첫 번째로 제고되고 실시되며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으

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더욱이 최초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진 히브리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밀도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터전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통로였으며 히브리 자녀들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신앙교육의 장이었다. 이것은 가정을 장으로 하는 교육의 처음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이정관, 2009, 161-162). 어느 가정이든 그곳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단위를 형성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히브리 가정들도 신앙교육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가정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최초 교육의 장으로 간주했다. 여기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전달되는 생활의 매개자였다. 따라서 가정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며, 교육이 가능했던 가장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현상이었다. 이들의 신앙교육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그 행위를 수행하는 교육 방법으로 루이스(Sherrill J Lewis, 1994)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히브리 가정의 교육은 온 가족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활동에 직접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 종교교육 방법은 어린이들의 모든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행해졌다. 셋째, 교육 방법은 가정에서 구전을 통한 방법이었다. 넷째, 교육 방법은 종교의식에 의한 것이었다(Lewis, 1994, 18-30). 특히 히브리인들은 구전을 통하여 부모는 자녀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말로 직접 가르쳤다. 그 진리란 두 가지 양상에서 이해되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인간들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진리와 율법이란 인간을 위한 여호와의 뜻이 담긴 계시라는 교훈이었다. 이 역사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히브리 가정에서 부모들의 구전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수되어왔다.

그리고 루터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정규적인 교육기관으로 생각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을 기독교 가정이라고 보았다(배가례, 1996). 가정에서 신앙교육이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길을 제시하고, 부모가 이 길을 앞서서 걸어가는 일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말

과 삶으로써 본을 보여야 한다. 구약의 히브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생활화되고 종교적 공동체로서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살아 있는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도 교사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배가래, 1996).

호레스 부쉬넬(Horace Bushnell)은 기독교 교육이 진실로 가능한 현장은 어디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곳은 신앙적 가정이라고 보았다.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두 기본적인 매개체가 있다고 믿었다. 하나는 회심의 과정으로서 어른들이 신앙과 경건으로 돌아 오는 장이다. 다른 하나의 길은 가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정을 통한 힘은 가정 구성원들의 신앙과 경건을 불러일으키는 힘 자체라고 부쉬넬은 이해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이 가지는 힘이야말로 교육의 질인 것이다(Bushnell, 1979, 94). 따라서 기독교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게 필요한 일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교육을 실행할 때 자녀들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이정관, 2017). 그리고 기독교 신앙교육은 인간의 삶 전체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며 나아가 할 과제를 갖는다(이정관, 2015). 그 과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여 자라나도록 하는 과제를 의미한다(송순재, 2006). 즉 가정에서 효과적인 신앙교육이 회복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소통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III. 신앙교육의 시작 대화

1. 의사소통의 부족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세상과 가정에서 소통하는 관계 지향적인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언어는 바깥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는 매개체이다.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를 소유하고 그 언어 속에 내포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을 의미한다(이정관, 2014).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관계를 결정하는 의사소통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가족부(2019)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 여부 및 1일 평균 대화시간은, 먼저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가 대화하는 비율은 2014년에는 88.3%에서 2017년에는 87.7%로 0.6% 감소하였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은 동 기간 95.0%에서 96.1%로, 1.1% 증가하였다. 1일 평균 대화시간으로 아버지는 2014년 1시간 미만은 56.5%, 1시간 이상은 31.8%였고, 2017년에는 각각 71.1%와 16.6%로 2014년에 비해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은 증가하고 1시간 이상은 감소하여, 3년간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하는 비율과 대화시간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는 2014년 1시간 미만은 41.9%, 1시간 이상은 53.1%였고, 2017년에는 각각 58.7%와 37.4%로 3년간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시간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부족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행할 기회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질과 양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신앙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신앙교육이 관계 깊으며,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신앙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조은희·정희정·김명식, 2020).

2. 가정에서 대화를 저해하는 요소

오늘을 사는 현대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자신의 위치나 역할, 진로에 대해 고민 등으로 자아 정체감에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과중한 학업에 대한 부담 등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또한, 청소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하려고 한다. 따라서 어느 시기보다 갈등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의사소통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공인숙·이은주·이주리, 2005). 이영미 등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이 부모와의 갈등이 높더라도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인 가족의 청소년은 심리,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미·민하영·이윤주, 2005). 그러나 가족에 대한 부족한 관심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데, 이것은 현대 가정의 비극이다. 참된 의사소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다. 자녀와 공감하는 대화를 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 오늘 했던 일, 그리고 자녀가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Beers, 1986, 392).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자녀의 관심사 내용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느낌을 따라서 행한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은 주로 대다수의 느낌을 결정하게 된다(Simon, 1970, 303). 자녀와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자녀들은 다음에도 계속 대화하려고 하겠지만, 부모가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화가 단절될 것이다. 그런데 부모들은 많은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한다. 대화가 단절된 사회 속에서 이제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또는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 못 하겠어”, “우리 부모는 늘 남하고 비교하는 말 만해”라는 말을 한다. 이렇듯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내 말만 들으라고 한다. 그러기에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관심의 대상이 부모에게서 동료 집단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과 마음의 문을 열고 꾸준히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빠르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모습을 지닌다. 그러면

자녀들은 반항적·불신관계와 자기들의 인격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배척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부모가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자녀를 다루는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배민아, 1996).

부모들은 자신들이 자녀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 대화를 사용한다. 효과적인 대화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거나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도 않는 생각을 꾸며서 말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말로 표현되는 주장이 몸짓 언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 대부분 자녀는 이것이 거짓 표현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부모는 정직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모가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자녀가 정확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메시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언어적인 메시지들과 비언어적인 메시지들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아이는 혼란을 일으키고 매우 당혹스러워한다. 이러한 현상은 때때로 이중 결합이라고 불린다. 즉 자녀는 두 메시지 사이에 모순 없이 동시에 반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녀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방법으로 반응한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부모나 자녀 모두 터놓고 이러한 혼란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이것이 정상적인 대화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러한 상황이 진리를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Balswick & Balswick, 2007, 139-140). 이러한 왜곡된 대화는 가정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저해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혜정, 유병은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보다 약 3배 많은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되었다. 걸림돌은 부모의 훈계, 강의, 비난, 빈정대기, 명령 외에 다양했다. 자녀는 논쟁과 회피, 비난, 떼쓰기 순서로 나타났다. 대화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문제점은 자녀의 회피적, 반항적 말투가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더욱 부추겨서 자녀 대 부

모의 반응으로 회피 대 훈계·명령·캐묻기, 논쟁 대 비난·논쟁, 강요 대 명령, 비난 대 비난·빈정대기 등의 경향이 나타났다(유혜정·조병은, 139).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시작하게 해주는 것이 열쇠이다. 부모들이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며 시종일관 마음을 열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대부분 자녀는 점차 적으로 부모와의 대화가 위로를 준다고 느끼며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기회를 계속해서 찾게 될 것이다.

3.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중요성

의사소통 능력이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능력으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상대방과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친밀감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과정으로서 의사결정 및 갈등 해소의 주요한 수단이며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남선우, 353). 가정에서 비난보다는 칭찬이 많고, 성냄보다는 기쁨이 넘치며, 식구들끼리 다정한 대화가 오간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이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가정에서 꾸중과 싸움, 비난, 그리고 성난 대화가 계속된다면 이는 정말 불행한 가정이다. 이것도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결정할 것이다.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우게 된다. 즉, 자녀들은 의사소통의 방법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된다.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관계 형성의 열쇠이며 심장이다. 의사소통의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냉전과 전쟁까지도 모든 일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없이는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다. 가정에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략과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Dial, 1986, 393).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가정에서 다양한 사랑의 표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언어를 통한 대화로 느낌들을 나누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형태의 대화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언어를 통한 대화는 정확성과 인격성이라는 두 가지 분명한 장점이 있다.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상징적 상호교류 과정이다. 부모와 자녀는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서로에게 맥락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된다(Galvin & Brommel, 1986). 특히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감정, 생각, 태도, 느낌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과정을 말한다(김종운·이명순, 2009). 특히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상호작용 수단이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가정생활이 원만해지며,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친밀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자녀 의사소통은 통제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은 자치적이고 자기 결정력을 높이며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연·황혜정(2005)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은 자녀가 사회적 관계 형성과 행동 양식을 학습하는 기초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개방적이고 공감적일 때 적절한 행동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

통적인 이해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여 문제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사고의 확산은 부모와의 대화와 가족관계의 유대를 점점 약화 시켰다. 따라서 자녀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부모 자녀 간의 축진적인 의사소통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김연·황혜정, 2005)고 하였다. 최아라(2021)의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심리자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기능적으로 인식하는 자녀들의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즉, 자녀가 부모와 의사소통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하에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등 기능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은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최아라, 2021)고 보았다. 최인덕(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며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였다. 그중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어나는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호 간에 관심을 유발하며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정은선·정종원(2017) 연구에 따르면, 부모 자녀 의사소통은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의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하였다. 부모 자녀 의사소통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개방적이고 원만한 의사소통은 부모 자녀가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긍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자녀가 타인에 향한 관용적 자세와 이해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부모와 관계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은선·정종원(2017)의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학업성취의 관계: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의 매개 효과의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과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 학업성취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과 매개변수인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자기 결정성 학습 동기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적합성이 확보되었다(정은선·정종원, 2017). 이 연구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관계에서 자기 결정성 신앙교육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4. 의사소통의 유형

의사소통의 유형을 김은미와 전주성(2019)은 연구에서 Barnes와 Olson(1985)의 의사소통 두 가지를 유형을 인용하였다. 즉, 개방형 의사소통과 폐쇄적인 의사소통이다. 첫째는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억압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이다. 둘째는 반대 개념인 폐쇄적 의사소통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비난하거나 명령조를 사용하여 자녀는 부모에게 두려움과 불신, 경계심을 느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다.

그 밖에 의사소통유형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유형과 허용적인 태도와 권위적인 태도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인 대화는 부모와 자녀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서 심중의 생각들을 서로 나눈다는 점에서 가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은 분노와 갈등뿐만 아니라 사랑과 친밀감을 표현함으로써 매우 친밀한 방법으로 서로를 알게 된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성장과 심화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서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화가 가정생활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자유와 능력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Balswick & Balswick, 2007, 237).

둘째는 허용적 태도로, 부모들은 자녀를 독립적인 개체로 대하여 자율성을 고무한다. 이들은 자녀를 이상적으로 다루며 권위를 과시하려 하지 않는다. 자녀 양육 행위는 이러한 신념으로 표현된다. 자녀의 행동반경은 매우 크며 자녀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자녀와 상의해서 행동에 대한 제한이나 방법을 결정한다. 허용적 태도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게 하고 통제를 피하며 외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복종하도록 권장하지 않는다(이정관, 2009, 167).

셋째는 권위적 태도로 독재적 태도와 허용적 태도의 장점을 잘 조합한 태도로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녀가 자율성을 갖도록 한다. 자녀에게 어느 정도 행동반경을 허용하며 이것이 부모의 권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부모들은 이상적인 설득, 명백한 권위 또는 심리적 강화 등을 이용하여 자녀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러한 부모는 의사소통을 권장하고 부모가 행하는 방식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 주며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 자녀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경청한다(Balswick & Balswick, 1989, 275).

5. 자녀와의 대화 방법

의사소통 과정의 80%는 듣는 문제이다. 듣는 일은 소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역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법도 학습되는 기술이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삶에 더 많은 감화와 유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모로서 목표로 삼아야 할 한 가지 일은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Hansel, 1986, 397). 그리고 자녀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들에게 다시 반향 시켜 주어야 한다. 이는 적극적인 청취 방법으로 듣는 것을 부모 자신의 말로 반복하여 자녀에

게 다시 들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말에 열중하여 듣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반향은 의사소통을 분명하게 해주며 자녀들에게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어 자신에 대한 긍지를 느끼게 된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은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신앙 성장을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으로서 케리 채프먼과 로즈 켈벨(Gary Chapman & Ross Campbell, 2011)은 자녀의 언어로 말하라고 한다. 즉 자녀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제1의 언어를 파악하라는 것이다. 자녀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는 5가지이다. 이 다섯 가지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이다. 다섯 가지 언어 중 하나에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겠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네 가지 방법도 자녀와 의사소통에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녀의 제1 언어는 바뀔 수도 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느끼는 의사소통은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혼자서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을 통해서 자녀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의사소통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와 의사소통 할 때 주의할 점은, 첫째 자녀를 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타이릴 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만큼 똑같은 수준의 예의를 부모로부터 배우게 된다. 만일 항상 자녀를 꾸짖기만 한다면, 머지않아서 부모를 피하게 될 것이다. 둘째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자녀들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의 의사소통 태도와 기술을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한 연령에 제한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러면 자녀는 자신이 성장한 것을 인정해 주는 말 상대를 찾게 될 것이다. 셋째, 자녀를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한다. 잘못에 대해 너그럽게 타이르되 자녀의 장점에 다시 초점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계속해서

서 자녀의 단점들만 나무라지 말아야 한다. 넷째 자녀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의 눈을 마주 보고 자녀에게 질문하고 답변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친구들과 그의 말에 관심 가지고 있음을 자녀들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Dial, 1986, 394). 그리고 하수연(2018)은 의사소통 방법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의사소통의 출발점은 개인이 가진 신념이다. 둘째, 의사소통의 발전과 변화는 개인이 가진 인성적 특성의 발현에 의존한다. 셋째,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자기 자각이 필요하다. 넷째,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내면과 행동이 일치하는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의사소통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어야 한다(하수연, 2018)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 부모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아야 한다. 이럴 때 자녀는 부모와 대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감추려 할 것이다. 부모의 유일한 관심은 자녀가 잘되게 하는 것임을 조용히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는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찾아갈 만한 상대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자녀를 훈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모들이 이와 같은 관계 안에서 훈계한다면 자녀와 의사소통은 단절되지 않을 것이고(Dial, 1986, 394), 신앙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IV. 신앙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어떻게 신앙교육을 통해서 양육하고 훈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성경은 부모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그런데 많은 부모는 자녀 양육과 훈계로 하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행할 방법을 몰라서 곤경에 처해 있다. 이 문제의

실마리를 의사소통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 부모와 자녀의 친함

부모와 자녀는 모든 인간관계 중 최고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기 위한 시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함에 두어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거부감이 없고, 좋아하는 부모가 하는 행동은 즐겁다. 또 좋아하는 부모의 말은 귀 기울여 듣고 싶어 한다. 부모는 자녀와 잘 놀아주어야 한다. 부모와 잘 노는 자녀가 부모와 진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무조건 다그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고 의견을 물으면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시간표를 만들어 자녀와 이야기하고 규칙적으로 놀아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셋째,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상명하달에서 인정과 존중으로 전환해야 한다. 평소에 자녀의 감정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노경선, 2007, 172-177). 이럴 때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을 친밀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은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준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무조건 친해져야 한다.

2. 교육의 시작 의사소통

가정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창조적인 분위기와 교육 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의 매체는 대화이다. 부모가 최초의 교육자라고 해서 만일 부모의 지식, 신앙, 관습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역할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가장 비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화자로서의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끊임없이 부모다운 모습을 갖춤으로써 자녀

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화는 자녀와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양육하는 행위이며, 의사소통과 돌봄의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가 사랑과 이해로 부모다운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자녀의 물음을 듣게 되며, 아울러 해답을 향한 공동체적인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은준관 1988, 93-94). 특히 자녀에게는 부모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녀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나눌 능력이 없는 가정은 머지않아 자신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는 개인들의 집합체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주된 역할은 상담자이어야 한다. 부모가 상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의 특성과 삶을 이해하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의사소통과 상담을 통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 부모가 상담자로서 자녀와 의사소통을 통해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것은, 적극적인 교육의 자세라 할 수 있다(이정관, 2009, 168).

이런 이유로 교육은 대화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청이다. 자녀의 말이 경청 될 때, 자녀는 듣는 부모가 자녀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느낀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숙고해 보고 자녀의 감정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부모가 자녀를 알고 자녀의 생각과 느낌을 알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친밀감이 생겨날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것은 자녀들이 훌륭한 결정을 내릴 때 최상에 이르는 확신과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어떻게 얻는가를 보여준다. 부모가 자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은, 자녀에게 그들이 부모의 주목과 신뢰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 이러한 확신은 자녀들이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힘을 부여받는다(Balswick & Balswick, 1989, 140). 이러한 힘의 부여는 부모와의 신뢰

관계 속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찰스 셀(Sell)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 부모의 자기 노출은 매우 중요함을 말한다. 부모가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수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셈이다. 첫째,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행동 결과를 보도록 도와준다. 만약 자녀의 행동이 부모를 짜증스럽게 했다면 자녀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자기 노출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세워준다. 내적 감정을 나누는 것은 관계를 든든히 해주는 길이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너랑 있는 것이 좋단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를 친밀하게 만든다. 셋째, 자기 노출은 자녀에게 진짜 세계를 가르쳐 준다. 모든 것을 자기 속에 감추어 두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중요한 지식을 감추는 것이다(Sell, 1995, 279).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의심, 유혹, 꿈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부모는 자기들과 같은 의심이나 유혹이나 이루지 못한 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경험 한다는 사실을 알면 자녀의 자신감은 강화된다. 또한, 자녀는 인격 성장에 중요한 자기감정을 나누는 법을 배움으로써 유익과 부모에 대하여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

의사소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의사소통에 유익하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힘의 한 형태이다. 부모가 만약 듣는 데 실패한다면 손상을 주는 거부에 이르기까지 한다. 부모가 잘 들어주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존중과 잠재력을 갖게 된다. 분명히 그리스도인 부모는 때로 꾸지람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고를 하기도 한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런 반영하는 대화법이 내면화되려면 부모들의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Sell, 1955, 280). 의사소통은 교육이며, 부모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가정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의사소통은 선악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육이다. 자녀는 부모의 대화 목소리의 억양으로부터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을 파악하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말로 심판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2:36).

3. 신앙교육 방법으로서 의사소통

가정에서 의사소통은 부모 자녀 간에 상호작용의 작용이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과 교육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Barnes와 Olsen(1982)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부모의 수용 정도와 부모 자녀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자유로운 감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반면 폐쇄적 의사소통은 경직된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비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Barnes & Olsen, 1982)라고 하였다.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떻게 지각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관계를 규정하는 매개수단으로, 자녀의 신앙교육 실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자녀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관심사나 학교생활 그리고 친구에 관하여 부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의 자녀는 학업성취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Houtenville & Conway, 2008).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정도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참여도와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적절한 자기 위치확인과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는 자아효능감이 높으며, 신앙교육을 실행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은 신앙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다준다.

부모와 자녀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예로 배희분, 옥선화(2015)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반한 의사소통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배희분과 옥선화의 연구는 가족 식사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잘 다루어 해결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부모들은 “대화법”이라는 답변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언급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함께해도 가족들 간에 공통

된 주제가 없어서 대화가 자주 단절되고, 대화의 질도 높지 않다는 점이 부모들 대부분이 어려워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그와 함께 청소년기 자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사춘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의 성격은 어떠한지 조금 더 알고 싶고 한 발 더 다가가고 싶은 참여자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배희분, 옥선화, 2015)고 하였다.

우리나라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이 식탁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주로 자녀의 학업 문제 혹은 잘못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대화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과 신앙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된다.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와 신앙에 관한 대화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자녀들에 대한 이해이다. 자녀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부모와 다르다. 자녀와 세대 차이는 신앙생활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고 배려할 때 세대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마음을 연 의사소통이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부모는 생활과 신앙에 대한 자녀와 많은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의사소통을 통해 신앙교육의 기회는 자주 있을 뿐 아니라 부모들은 의도적으로 신앙적인 대화를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모가 신앙에 관한 대화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함께 읽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영상 문화가 발달하는 상황에서 영상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영상 매체를 통한 자녀와 대화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녀들은 이미 영상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가정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녀의 생활 전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대화를 통해 자녀의 생활 방향과 방법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형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자녀와의 대화에 있어서

부모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가정 내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확대될수록, 그 가정은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가정이 된다(이정관, 2009, 169).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부모들도 자녀와 대화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분명하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의사소통 여기서부터 시작일 것이다.

V. 나가는 말

기독교 가정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삶이 시작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 신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인 성장과 발달(눅 2:25)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나라 부모는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신앙교육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신앙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부모는 가정에서 실행하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자존감을 그리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부모 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이정관, 2019). 부모교육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올 것이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는 데에는 확신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과 친밀감 있는 올바른 대화의 시작은 자녀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며,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하는데 가장 큰 이점이다.

참 고 문 헌

- 공인숙·이은주·이주리 (2005). 청소년 부모와의 갈등 및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한국 생활과학학회지**, **14(6)**, 925-936.
- [Kong, I. J. & Lee, E. J. & Lee, J. R. (2005). Conflict and communication with adolescent parents and self-concep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4(6)*, 925-936.]
- 김연·황혜정 (2005).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축진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0(4)**, 69-88.
- [Kim, Y. & Hwang, H. J. (2005). The influence of the promotive communication perceived by both parents and their children to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0(4)*, 69-88.]
- 김은미·전주성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문제연구**, **32(4)**, 215-234.
- [Kim, E. M. & Jun, J. S.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 esteem.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2(4)*, 215-234.]
- 김종윤·이명순 (2009). 가족증진 교육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2(1)**, 61-76
- [Kim, J. U. & Lee, M. S. (2009). Effects of relationship enhancemen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on parent-child communication, the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and children's self-eEsteem.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2(1)*, 61-76.]
- 남선우 (2020). Flipped-PBL이 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교육논총**, **64**, 347-368.
- [Nam, S. W. (2020). The effect of Flipped-PBL on the communication and

problem solving skill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347-368.]

노경선 (2007). **아이를 잘 기운다는 것**. 서울: 예담 Frind.

[No, K. S. (2007). *Raising a child well*. Seoul: Yedam Friend]

배가례 (1996). 가정과 교회에서의 어린이 교육. **기독교교육**, 335, 13-17.

[Bye, G. R. (1996). Education of children at home and at church. *The Christian Education*, 331, 13-17.]

배민아 (1998). 신앙과 삶의 나눔을 위한 가정교육. **기독교교육**, 258, 33-38.

[Bye, M. A. (1998). Home education for sharing faith and life. *The Christian Education*, 258, 33-38]

배희분·옥선화 (2015). 중학생의 부모를 위한 가족식사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가족과 문화**, 27(3), 153-190.

[Bae, H. B. & Ok, S. W. (2015). The effects of family meal educa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s o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 sense of competence. *Family and Culture*, 27(3), 153-190.]

송순재 (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연구. **교육문제연구**, 30, 1-38.

[Song, S. J. (2008). Theoretical basic research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Korean Education Inquiry*, 30, 1-38.]

여성가족부 (2019). **2019 청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 *Youth White Paper 201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유혜정·조병은 (2011).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과 실제 상황적 수행평가 개발 및 적용:부모 자녀의 실제 대화 UCC 동영상 활용한 대화 분석을 토대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3), 139-160.

[You, H. J. & Cho, B. E. (2011).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teaching and leaning plan and practical performance assessment tools to promote

communication between teenagers children and their parents: focusing on conversation analysis of real conversation in UCC video project.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23(3), 139-160.]

은준관 (1988). **기독교교육 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Eun, J. K. (1988). *Christian education*. Seoul: Korean Christian Publishing House.]

이영미·민하어·이윤주 (2005). 부모간 갈등과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53-62.

[Lee, Y. M. & Mim, H. Y. & Lee, Y. J. (2005). Psychosocial adaptation of late adolescents due to parent-child conflict and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5), 53-62.]

이정관 (2009). **청소년교육**. 서울: 도서출판삼보아트.

[Lee, J. G. (2009). *Youth Education*. Seoul: Sambo Art.]

이정관 (2014).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 **기독교교육논총**, 38, 307-329.

[Lee, J. G. (2014). Caring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hristian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8, 307-329.]

이정관 (201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가정교육의 필요성 연구. **신학과 실천**, 54, 393-416.

[Lee, J. G. (2017). The role of parents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the need for Christ home education. *Theology & Praxis*, 54, 393-416.]

이정관 (2019). 청소년 폭력의 원인과 기독교교육적 돌봄. **신학과 실천**, 66, 383-410.

[Lee, J. G. (2019). Study on the causes of youth violence and Christian education guidance. *Theology & Praxis*, 66, 383-410.]

이정관·이성훈 (2015). 에코세대를 위한 대학에서의 결혼준비 교육과 기독교적 교육의 당위성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47, 203-230.

[Lee, J. G. & Lee, S. H. (2015).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university

curricula on marriage preparation education and Christian education for the Eco-boomer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7, 203-230.]

정은선·정종원 (2017). 초등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사-학생 의사소통과 학업 성취의 관계: 자기 결정성 학습동기의 매개효과. *교육문제연구*, 30(3), 77-102.

[Jung, E. S. & Jung, J. W. (2017). The effect of parent-child and teacher-student communication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 on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0(3), 77-102]

조은희·정희정·김명식 (2020).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을 조절변인으로. *영유아이동성신건강연구*, 13(1), 43-57.

[Jo, E. H., & Jeong, H. J. & Kim, M. S. (2020).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with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on school adaptation with self efficacy as a moderator. *Korean Journal of Infant Mental Health*, 13(1), 43-57]

최아라 (2021).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긍정 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3(1), 1-14.

[Choi, A. (2021).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the daily stress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3(1), 1-14]

하수연 (2018).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한 생각 자석 활용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안. *인문사회* 21, 9(4), 1499-1510.

[Ha, S. Y. (2018). The developmen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model using think magnet to cultivate creative personal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4), 1499-1510.]

Chapman, G., Campbell, R. (2011). **자녀를 위한 사랑의 5가지 언어**. 장동숙 역. 서

을: 생명의 말씀사. (원저 1997 출판)

[Chapman, G., Campbell, R. (2011). *The five love languages of children*.
Translator : Chang, D. S. Station. Seoul: Word of Life.(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7)]

Balswick, Jack O., Judith K. Balswick (2007).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Grand Rapids : Baker Academic.

Barnes, H. L., Olson, D. L.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on et al. (Eds.),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33-48).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Beers, V. Gilbert (1986). Developing and improving family communication.
Kesler, Jay., Beer, Ron., & Neff, LaVonnie. (Eds). *Parent & Children*.
Wheaton : Victor Book, 391-393.

Bushnell, H. (1979). *Christian nurtur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Dial Richard P. (1986). Why Communication is important. Kesler, Jay., Beer,
Ron., & Neff, LaVonnie. (Eds). *Parent & Children*. Wheaton : Victor
Book. 393-394.

Galvin, K. M.,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Glenview*, 3, 205-230.

Hansel, T (1986). How to be a better listener. Kesler, Jay., Beer, Ron., & Neff,
LaVonnie. (Eds). *Parent & Children*. Wheaton : Victor Book, 397-399.

Houtenville, A., & Conway, K. (2008). Parental effort, school resources and
student achieve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s*, 43(2), 437-453.

Lewis, S. J. (1944). *The rol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ian Co.

Sell, C. M. (1995). *Family ministr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Simon, M. P. (1970). Guiding parents in child-training and disciplin. Zuck B.
Roy., Getz, Gene A. (Eds). *Adult education in the church*. Chicago :
Moody Press. 302-310.

Abstract

Communication for Children's Education in the Family

Jeungwan Lee
Professor, Anyang University

In today's family, it can be said that children's faith education is in a very difficult time. Moreover, faith education at home is urgently requir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as society changes rapidly, families are also changing rapidly. As the current society became diversified and personalized, the family lost its educational func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immediately said that faith education in Christian families has collapsed. The reason is that the problem of faith education in today's family lies in poor communication. Communication problems are becoming difficult for parents and children due to changes in values caused by individualism and capitalism, and as the difference between values and the generation of children widens. In addition, disconnection of dialogue at home due to the disconnection of culture between generations is an obstacle to faith education. It is urgent to restore the educational function of Christian families. When parents provide Christian faith education to their children, their children can grow up properly. Communication with children is desperately needed to restore the purpose and function of faith education at hom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children's motiv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Parents and children's communication must be open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need to be sufficiently motivated for faith education. In order to solve the immediate problem of the absence of faith education at home, an alternative will be proposed to restore faith

education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First, the necessity of faith education at home will be discussed. Then communication at the beginning of faith education will be considered. And third, communication and methods at home to implement faith education will be presented. This stud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provide clues to restore and implement faith education in Christian families.

《 **Keywords** 》

Children, communication, home, Parents, faith education

- 투고접수일 : 2021년 1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2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30일